

“무안, 세계 잇는 서남권 스마트 공항도시 육성”

도, 3조 규모 무안 6대 비전 발표

미래 신산업·첨단 농산업·SOC
동북아 물류 등 21개 계획 마련
“민간·군공항 공론화위도 구성”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대 관건인 무안군과의 소통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조원대의 무안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역대급 당근책을 발표했다. 전남도는 무안 발전을 위한 비전과 광주 민간·군 공항의 동시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적 소통 창구인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14일 도청에서 무안 군을 ‘세계를 잇는 서남권 게이트웨이, 인구 20만 스마트 공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3조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인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전남의 행정수도이자 서남권 국제교류 관문인 무안국제공항을 갖춘 무안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과 인프라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미래 신산업, 첨단 농산업, 해양관광, SOC 등 6대 비전 21개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무안군에 6110억원을 투자해 동북아 항공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에어로첨단 미래도시’를 만들어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민, 군인 등 편입세대와 추후 조성될 미래산단 배후도시로서 안정적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항공 국가산단’을 조성해 항공관련 기업 유치와 함께 물류산업을 연계한 첨단 항공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에너지·반도체·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에 4661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기반 RE100 특화단지’,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목포대 화합물반도체센터를 기반으로 ‘최첨단 화합물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을 집적화하고, ‘K-푸드 융복합 일반산단’을 조성해 농식품 및 농산업 제조기업 등도 유치한다.

1조3700억원대의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등을 조성한다.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국립첨단농산업진흥원’을 건립해 농업의 전주기 스마트·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첨단 농산업 소재·부품·장비 산단’과 ‘대규모 지능형 스마트 온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를 위해 1099억원을 들인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무안갯벌이 세계적 생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3조원 규모의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태관광 메카로 거듭나도록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현경면 일원에 ‘황토갯벌랜드 경관산책로’를 만들어 해양관광의 명소로 만들 계획이다.

광역 SOC를 위해 4086억원을 투입한다. 무안 남악·오룡 신도시와 목포를 잇는 ‘전남형 트램’을 구축하고, 현경 송정과 마산을 잇는 국도 77호선을 4차로로 확장

해 주민의 교통환경을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에 420억원을 투자한다. 청계면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상생 플랫폼을 만들고, 일로읍 일원에 교육·문화·체육시설 등이 어우러진 센터를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또 현경면 가립

향과 해지면 마실항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협의해 6대 비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국비 확보 등 다각적 전략을 세워 착실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 이전 문제와 무안군 미래 발전을 위한 공식 의견 수렴기구로 ‘무안발전공론화위원회’ (가칭)를 만드는데 무안군과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무안군민과 허심탄회하게 공개토론회 대화의 장을 마련하도록 무안군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무안 미래 지역발전 비전은 무안군 나아가 전남의 대도약을 이끄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안군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루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맨처음 국가계획 자체가 무안국제공항에 광주 민간공항이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주시의 민간공항 이전은 국가적 의무이행”이라며 “민간공항을 먼저 보내겠다든지, 아니면 군 공항 입지 문제가 해결되면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광주시가 분명히 밝혀야 하고, 광주시장과의 회동에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황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지역 고용시장 훈풍?’

1면서 계속 대학시절전자공학을 전공했던 이씨는(가명·25)씨는 한번 취업을 했다가 다시 취업준비생 생활을 하고 있는 ‘재취업생’이다. 대학교 졸업 전 취업이 확정되고 1년 정도 근무를 했지만, 맡은 업무가 전공과 관계가 없고 보다 높은 연봉의 직장을 위해 지난 봄 퇴사했다.

이씨는 “학교 다니면서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아서 원하는 직무나 연봉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제대로 된 스펙을 쌓으면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다시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쉬는 청년’도 취업 통계에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구문정 광주청년센터장은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로, 통상 취업, 실업자가 아닌자를 말하는데, 특히 ‘그냥 쉬고 있다’고 응답하는 20~39세의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7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4주간 적극적인 구직활동자’에도 제외되며 실업률이 낮아지는 통계적 착시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취업률도 올라가고 실업률 수치는 낮아지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실질 취업률은 더욱 찬바람이 부는 것”이라며 “그냥 쉬고 있다고 답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인데,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사회, 세상과 멀어지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시·도의회 ‘한목소리’

지역의사제 도입 등 촉구 공동성명

전남의 현안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손을 맞잡았다.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과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의대 유치 대책위 소속 도의원 등 50여 명은 14일 광주시의회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 전남은 고난도 중증 질환자를 치료하는 상급 종합병원이 전무한, 지극히 열악한 의료상황에 처해 있고, 지역민의 ‘원정 진

료’로 인한 의료비 유출 또한 연간 1조 6000억원에 달해 생과 사를 가르는 가장 절실한 순간까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전남의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나머지 환자들이 광주까지 긴급 이송되다 골든타임을 놓쳐 숨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전남권 의대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장 역시 “매년 반복되는 ‘응급실 뱅뱅이’와 한계에 치달은 소아과 의료 대란은 광주·전남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의료기

본 차별 문제를 푸는 근원적 열쇠는 국립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한 시·도의원들은 지역의 의료현실 개선을 통한 시·도 상생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호를 위해 광역의회 차원에서 모든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전남 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최근 전남 여야 4당 위원장들은 도의회 제안으로 공동협약을 맺고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한 대안 도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은지 기자

공고문 제 2023-6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4년도 연구개발사업 과제별 연구책임자 공모(신문)

환경부 녹색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규정 제24조에 의거하여 2024년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개발사업의 과제별 연구책임자(연구기관장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추진과제 (5건)

〈표 1〉 추진 연구제안서 목록

구분	No.	과제명	연구비(천원)
조사연구	1	광주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연구	25,000
기술개발	2	미생물막과 전극의 전기화학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공극의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연구과제)	30,000
	3	안정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AI 기반 물재이용 기술 최적화(연구과제)	30,000
	4	고도 폐수 처리 및 물 에너지 재이용을 극대화를 위한 수전해-압력지연식막중류(PRMD) 융합 공정 설계 및 타당성 평가	30,000
산학연	5	태양광-생물전기화학반응 시스템을 이용한 Zero-에너지 배터리 및 이차전지 공정 폐수 내 유기금속 처리 및 회수법 개발	40,000 (센터: 25,000 /기업: 15,000)

※ 연구과제 및 연구비는 행정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연구기간 : 2024. 4. ~ 2024. 11. (약 8개월)

※ 연구기간은 연구책임자 선정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기간 : 2023. 12. 4.(월) ~ 12. 18.(월), 18:00 까지

4. 제출서류

○ 연구개발사업신청서 1부 (파일명: 연구책임자명.hwp)
※ 관련서식은 센터홈페이지(www.gjgrec.or.kr)에서 다운로드

5.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및 제한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참조(자료실)센터규정)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규정, 2020년 3월 5일 기준)

나.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제한

※ 최근 3년간(2021~2023년) 2개 이상 18개 전국센터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구책임자(연구원) 신청 불가

6. 신청서 작성방법

가. 연구개발사업계획(안) 제안서를 참고하여 작성
나. 연구비 계상 시 연구개발사업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다. 산학연협력연구는 참여기업(제안서 참고)과 협의 후 제출

7. 제출방법 및 문의처

가. 제출방법 : 이메일(gjgrec@hanmail.net: 제출기한 엄수) 또는 방문 접수

나. 접수처 : (우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관 301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다. 문의처 : (062)530-3991 연구지원담당자

2023년 12월 4일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정승인 공고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심판

사건번호 2023노단10358 상속한정승인
사망자 김동수(000603-3*****)
최후주조 목포시 목암로 177-1, 209호
(석현동,에드가안제)

2023년 12월 15일

공고인: 김병만
한정승인 수리일: 2023년 12월 12일
공고기간: 2023. 12. 15. ~ 2024. 2. 14.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신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